

명예심

— 「한국인」 그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인가? 〈1〉 —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제공 *

이름 가운데에는 누가 지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며 내가 노력한 결과로 불리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반드시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이름이 있다. 그것은 민족의 이름이다. 「한국인」이라는 이름은 「미국인」이라는 이름과는 다르다. 미국인은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어느 인종의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의 출신이든지 관계 없이 주어지는 이름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민족의 이름인 동시에 국적에 의한 이름도 된다.

「한국인」이라는 이름, 그것은 비록 선택한 이름도 아니고 노력하여 얻은 이름도 아니며 우연히 붙여진 이름도 아니지만,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나를 송두리째 나타내어 주는 이름이다. 그 이름이 영광스러우면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 이름이 수치스러우면 내가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 이름이 가지는 명예나 수치는 나의 명예이거나 수치이다. 나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명예심과 수치심은 사실상 인간의 같은 심성이 달리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명예심이 자신의 본질과 가치를 발휘하고 있을 때 가지는 마음이라면, 수치심은 그것을 잃었을 때 가지는 마음이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치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슨 일로 『부끄러운 줄 알라』는 말은 명예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말이다. 이름은 그것이 자신의 고유 명사이든지 「한국인」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이름이든

지 간에 그 이름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고 표현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신라인」의 이름을 걸고 왜국에 건너가 왜국의 왕과 대결한 신라인 박제상의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

신라의 눌지왕 때 왕의 아우인 미사흔이 왜국에 볼모로 잡혀 갔다. 왕이 항상 아우를 그리면서 괴로와하는 것을 보다 못해,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박제상은 신라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가장하여 왜국의 왕앞에 나타나 그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였다. 왜왕의 신임을 받아 기회를 노리다가 미사흔을 몰래 신라로 보내고 난 후, 결국 왜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 사실이 탄로나고 말았다. 박 제상은 당당히 신라의 신하요, 왜국의 신하는 아니라고 하였다. 왜왕의 분노와 위협이 소름끼칠 정도였지만, 그는 “이제 우리 임금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 아무 말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왜왕은 “네 이미 나의 신하가 되었는데 신라의 신하라 하니 반드시 죽이겠으니,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벼슬을 높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박 제상은 “차라리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되고 싶지 않으며, 차라리 계림의 형장을 받을지언정 왜국의 벼슬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왕은 세 번이나 다시 물었으나, 박 제상은 끝까지 신라의 신하임을 말하다가 불에 타 죽음을 당했다. (『삼국유사』에서)

왜국의 신하로서 받는 어떤 벼슬의 영예스러움도 박 제상에게는 신라인이라는 이름과 바

꿀 수 없는 것이고 차라리 죽음과 바꿈만 못했던 것이다. 고려의 신하라는 이름을 지키려다가 선죽교에서 죽음을 당한 정 몽주, 「일본 천황의 신민」이라는 이름을 받는 대신에 죽음을 택한 애국 열사들, 공산주의자로 불리기를 거부하면서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무수한 용사들, 그 뿐 아니라 지체 있는 가문의 이름을 지키면서 평생을 바친 열녀와 효녀들도 자신의 이름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고고하게 살아서 우리의 역사 속에 빛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이름의 주인이다. 그



이름의 명예가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심혈을 바쳐 간직하고, 그것이 광채를 내도록 갈고 닦는 것은 곧 나의 모두를 지키고, 나를 간직하며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 이름은 주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껴 주지 않으며 빛내 주지도 않는다.

해마다 서울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 대항 운동 경기가 벌어진다. 재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문들까지도 운동장에 나와 모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한다. 그것은 모교의 이름이 곧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여러 해를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떠난 교사들보다 3년밖에 다니지 않은 졸업생들이 그 학교의 명예를 더욱 중시하는 것은, 그들이 그 학교의 이름

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름의 주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못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가문을 뽐내고 모교를 자랑하며 자기 고향의 인물들이나 친구들의 이름으로 자기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자랑스러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 가문이나 고장이나 직장이나 모교나, 나아가서 나라의 이름이 아무리 명예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빛내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한 바가 없다면, 그것은 그 이름에 「무임 승차」하는 철면피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인」이라는 이름 그것은 과연 자랑스러운 것인가? 나라가 극히 가난하고 「약소 국가」라는 명칭을 우리 스스로가 붙이고 있을 때 외국에 머물고 있던 동포들 중에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산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다. 그들에게 있어 「한국인」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한국인임을 속이고 사는 것이 다행스럽다고도 생각한다.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내 나라를 빛내 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행위를 합리화하든지 간에 그들은 결국 국적을 잃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진 「한국인」이라는 이름에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한국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냐를 남의 나라의 찬란한 이름이나 보잘 것 없는 소국의 이름과 견주어 따질 것은 없다. 그 이름의 주인인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의 존귀함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보다 자랑스럽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뿐이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한국인」일 뿐이다. *